

# 그 어딘가의 굽이에서 우리가 만났듯이

책과 떠나는 시간여행 ⑤ 연인과 새벽을 노래한 옥중서간집

군대를 감옥과 같은 줄에 놓고 표현했던 코미디 프로그램이 방송위원회로부터 '주 의'를 받았다. 제대하는 연예인에게 두부를 먹이는 연출은 분명 넌센스다. 그래도 두 곳 의 특수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심리적 공통점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그것은 사람 에 대한 그리움이다. 왜? 그곳에도 사람들이 있지 않냐고, 동료병사와 수형인 동료가 있 지 않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집단적으로 그리움을 앓고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군대와 감옥의 '입사식' 풍습은 어느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보면, 반가움 의 표시이다.

밤낮 보는 얼굴이 그 얼굴일 때, 정인(情人)에 대한 그리움은 깊어만 간다. 보고 싶 은 사람을 못보면 애간장이 탄다. 사무친 그 리움을 달래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편지다.

감옥에서 쓴 편지를 책으로 엮은 옥중서 간집은 '몸이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떨어진 다'는 속설을 무색케 한다. 압제자의 부정한 권력이 육체는 감금할 수 있어도 고귀한 인 간정신은 가뒤통수 수 없다든 진리를 확인시 켜 준다.

## 채광석과 김남주, 그리고 사랑의 발자취

가파른 사회현실은 순결한 영혼들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았다. 불의와 부조리가 횡행하 던 시절, 예민한 감성을 지닌 시인들은 저항 의 한복판에 섰다. 그들은 감옥에 '처넣어졌 고'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썼다.

"한 사람을 사랑과 믿음의 상대자로 택할 때 나는 이미 그의 곱고 아름다운 면 뿐만 아니라 어둡고 불안정한 면까지도 믿고 사랑하겠다"는 평범하면서도 단호한 결단이 들어 있는 채광석 시인의 《그 어딘가의 구 비에서 우리가 만났듯이》(형성사, 1981)가 이번 여행의 출발점이다. 70년대식 '더러운 욕망'은 이미 슬한 양심수를 만들어냈던 바, 그들 역시 필설로나마 별리의 아픔을 삭였 을 것이다.

채시인의 옥중서간집은 감옥에서 쓴 편지 가 단행본 형식으로 독자에게 처음 선보인 뜻깊은 책이다.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의 은 밀한 기록을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었던 것 은 편지가 사신(私信)의 한계를 넘고 있기 때문. 이는 양심수에 의해 씌어진 옥중서신

의 공통점인데, 채시인의 사랑법도 범부의 그것은 아니다.

"나는, 사랑이란 것을 어떤 '사적인 행복 찾기 놀음'이라는 형식에서 탈피시켜 삶, 죽 음을 아우르는 조금은 덩치 큰 것으로 정신 화하고자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정신 이나 관념은 자칫 잘못하면 말이 앞서고 실 제는 뒤진다는 뼈아픈 결점을 항상 내포하 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나는 버려질지 언정 버리는 인간은 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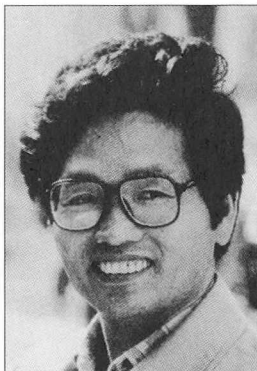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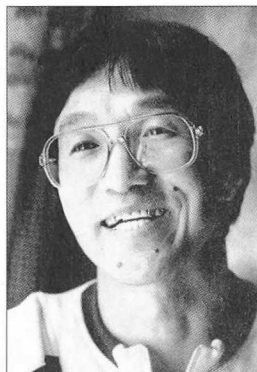
채시인은 75년 5월 긴급조치 9호 위반으 로 2년형을 연도받는다. 이 책은 77년 만기 출소까지 서울구치소와 공주교도소에서 쓴 편지 126통을 모은 것이다. 수신자는 후일 그의 아내가 된 강정숙씨. 두 사람은 군복무 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4학년 복학생과 갓 입학한 신입생으로 만났다. 남자가 감옥 으로 끌려가는 통에 두 사람의 만남은 한달 만에 끝날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높은 담장 과 옥중한 쇠문들 사이에 두고 넘나든 사랑 의 편지가 그들의 사랑을 영겁게 했다.

이 책은 폭발적인 호응을 얻지는 못했지 만, 소리 소문 없이 독자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형성사판은 절판상태에 있고, 시중 에는 재판 형식을 취한 청년사판(1986)과 채광석 전집의 셋째권인 《그대에게 못다한 사랑》(폴빛, 1989)이 남아 있다.

《산이라면 넘어주고 강이라면 건너주고》(삼천리, 1989)는 김남주 시인이 그의 약혼 녀 박광숙씨에게 보낸 편지 모음이다. 김남 주는 혁명시인이기 전에 혁명전사였다. 79년 10월 '남민권'의 조직원으로 체포돼 88년 12월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될 때까지 9년 2 개월을 복역했다.

뒷부분에는 친지·벗들에게 보낸 편지가 들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김시인의 '연애편지'에는 연인 사이의 밀어는 보이지 않 는다. 대체로 묵직하고 강한 어조로 애인의 의식을 곧추세우려 노력한다. 감동적인 글은 어떤 것인지 언급한 편지에도 그런 그의 의 지가 드러난다.

"감동적인 글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그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사람들의 전진운동 속에서 나올 것입니다. 자기의 체협과는 먼 데서 글의 소재를 구하려 말고, 자기 바로 이웃에서 찾아보세요. 아니 찾는다기보다는



서준식(위)  
김남주씨.

바로 자기체함을 그냥 그대로 솔직담백하게 쓰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채광석 시인의 연서가 유유체라면 김남주 시인의 연서는 강건체인 셈이지만, 두 사람 은 비슷한 점이 더 많은 닳은꼴 시인이다. 두 시인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채 시인은 87년 7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김시인은 94년 2월 오랜 감옥생활에서 얻은 것으로 보이는 체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랑의 발자취 역시 두 시인의 닳은 점을 두드러지게 한다. 몸은 비록 감옥에 있었어 도 편지 교환을 통해 사랑이 무르익었고, 감 옥을 나와서는 편지의 대상과 결혼, '이들' 을 낳는다. 그들은 우리 곁에 없지만, 그들이 남긴 시와 편지, 그리고 혈육은 우리에게 두 사람에게 대한 기억을 환기한다.

"(…)소년이여/참되고 옹음이 짓밟히고 쓰 러지는 시절에/우리의 자랑인 남주와 광석 이/세상에 남기고 간 혈육이여/어여쁜 소년 이여//오늘 문득, 힘들고 외로울 너희 어머 니들 모습에 겹쳐/어린 너희들 얼굴을 떠올 리노니/(…)아직은 긴 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세월은 이렇게 또 지나가노니/너희들 건강하게 자라렴!//남주의 아들인 토요일 이여/광석의 아들인 수왕이여/살아있는 우리 들의 애뜻함이여!(김명수, <토일리와 수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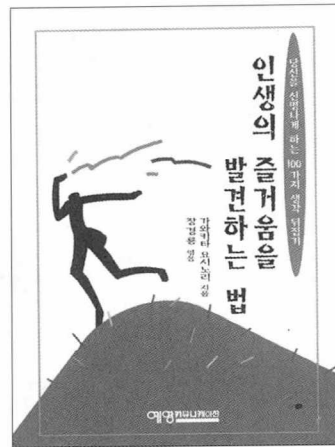
이)에서"

## 새벽의 햇살을 보기 위해

우리의 전근대적인 행형제도는 거의 야만 적 수준이었다. 수형인에게 펜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결수에게 허용된 편지쓰 기는 겨우 한달에 한통. 그것도 봉합염서의 제한된 지면이었다. 양심수 사이에선 얼마나 조밀하게 글을 쓸 수 있느냐도 한때의 화제 였다. 글자의 집적도 부문에서는 새정치국민 회의 김대중 총재의 편지가 단연 으뜸.

《김대중옥중서신》(청년사, 1984)은 '김대 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3년여의 옥살이를

## 예영커뮤니케이션의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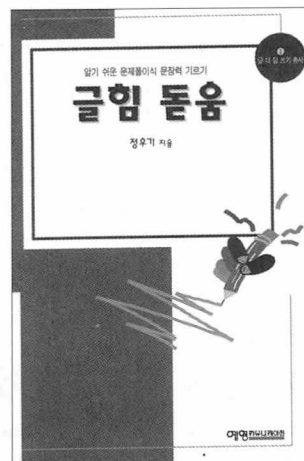


### 당신을 신명나게 하는 100가지 생각 뒤집기 **인생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법**

가와키타 요시노리 지음 · 장경룡 윤킴/4·6판(양장)/328면/7,500원  
인생의 행간을 읽으라.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인생은 즐거워진다. 이 책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잠들고 있는 신명나는 인생의 비법들을 밝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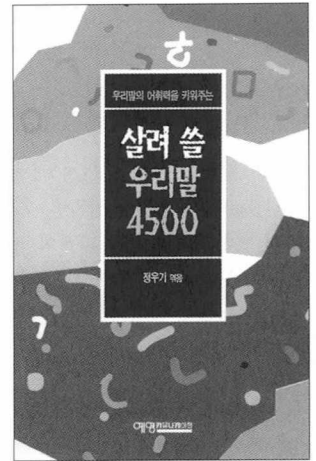
노는 기본으로 일하자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우선 현재를 즐긴다  
회사는 그만 두고 싶을 때 그만 두면 안된다.  
수수하고 평범한 인생이야말로 멋지다  
때로는 행방 불명이 되자  
부자를 부러워하는 것은 인생의 아마추어다

어쨌든 아내만큼은 화나게 하지 말라  
자연의 싸이클을 따르는 생활을 하라  
계획대로 안되는 일을 즐기는 시대  
컴퓨터 시대일수록 감성을 기르라  
장인(匠人)근성을 가진 사람이 되라  
경쟁에서 공생의 시대로



### 글힘 돌음

정우기 지음/신국판/258면/6,000원  
알기 쉬운 문제풀이식 문장력 기르기. 이 책은 여러 예문을 읽으면서 글을 보는 눈이 열리고, 글을 쓰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글힘을 길러주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 살려 쓸 우리말 4500

정우기 지음/4·6판/320면/6,500원  
우리말의 어휘력을 키워주는 우리말 사전. 이 책은 사전에 있는 낱말을 가운데 순수한 우리말과 북한말을 가려뽑아 체계있게 정리한 것이다.

가파른 현실 속에 불의가 횡행하던 시절, 예민한 감성을 지닌 시인들은 저항의 한복판에 섰고, 감옥에 '치넣어졌으며'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썼다. 이 옥중서간집은 육체는 가둘지언정 고귀한 인간정신을 가둘 수 없다는 진리를 확연하게 한다.

할 때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묶었다. 29통의 편지를 싣고 있는데 3백쪽이 넘는 분량이다. 책 장정에 봉합엽서의 내용을 실물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 빠르게 들어찬 작은 글자를 확인할 수 있다. 김충재도 감옥이 대학의 구실을 했다고 술회한 바 있거니와, 책읽기는 양심수들의 주된 일과다.

편지 끄트머리에 이리저리한 책들을 차입해 달라는 주문을 잊지 않는다. 82년 7월 27일자 편지에서는 《한국기독교회사》《현대역사사상》《우주와 역사》《프로이트 심리학입문》 등을 넣어달라고 부탁한다. '옥중서신'은 84년 '해빙' 분위기에 편승해 출간되어 상당한 반응을 얻었다.

이 책에 얽힌 에피소드 하나. 87년 대통령 선거에 평화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출마한 김충재는 '옥중서신'을 발췌한 수첩 크기의 선거홍보물을 만들어 뿌렸다. 하지만 이 소책자가 그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다.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된 개인적인 기록의 가치를 헤아려 줄 유권자는 그리 많지 않았나 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8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장의균씨의 옥중서간집 《우리 아이들의 나라》(현, 1989)이 나오자, 교도소의 장씨 담당은 교도소에 비치해둔 편지의 복사본과 대조해가며 사흘을 꼬박 바쳐 이 책을 읽었다. 행여 서신 검열을 받지 않고 외부로 유출된 편지가 있지 않나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편지는 아내와 세명의 자식에게 보내는 것인데,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하며 장씨를 조사한 수사관의 말을 인용한 것이 이채롭다. "너희들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려면 사람

들이 본성을 바꾸어 남을 위하고 모두가 나누어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장의균씨는 형이 확정되기까지 1년간은 거의 매일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부인 윤혜경씨(개마서원 대표)도 거의 매일 구치소를 경유해 출근했지만, 못다한 말은 필설로 달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에게는 동화를 통해 '아비의 정'을 전한다. 이 책의 1부에 놓인 '황금열쇠 이야기'는 감옥에서 아이들을 위해 쓴 동화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새벽'은 우리가 이뤄야 할 목적지를 상징했다. 시인은 새벽을 노래하고, 정치인도 새벽을 언급했다. 옥중서간집 제목에도 '새벽'이 많이 새겨져 있다.

《새벽노래》(미래사, 1988)는 사회운동가 장기표씨의 편지를 모았다. 이 책은 그의 여러번에 걸친 투옥경험 가운데 86년 5·3인 천사태로 영어의 몸이 되었을 때 쓴 것이다. 사랑과 자유를 희원하는 해방의 몸짓이 교도소의 장벽을 뛰어넘어 새벽을 노래했다. 저자의 《우리 사랑이란 이름으로 만날 때》가 옥중서간집에 앞서 나와 화제가 됐다. 이 책은 장씨가 수배중일 때 세들어 살던 집주인의 딸에게 결혼선물로 준 '장기표식 사랑론'이다.

《새벽일기》(청맥, 1989)는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김현장씨의 편지글 모음. 김씨가 르포작가로 활약했을 때 썼던 글들도 함께 수록했다. 《뿌리깊은나무》에 실렸던 '무등산 타잔'에 관한 르포나 '매춘공화국'을 다룬 긴 글은 그의 '행동'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세권으로 엮은 서준식씨의 옥중서간집(형성사, 1989) 둘째권 제목도 《새벽의 절망을 두려워 않고》이다. 서씨는 '유학생 간첩' 사건으로 7년형을 받았다. 만기출소를 앞둔 그에게 새로 만들어진 사회안전법의 족쇄가 다시 채워진다. 이 책은 10년 보호감호 끝에 풀려난 서준식씨가 17년간의 감금생활 동안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세권으로 정리한 것이다. (다음호 계속) — 최성일 기자

〈고침〉 지난해 '홍성신서' 관련내용 가운데 홍성사 상무는 홍순홍씨로 바로잡습니다.

## '97 기독교 출판 아카데미

강의일정 : 4/15(화) ~ 5/8(목) 매주 화, 목요일 PM 6:00~9:00

현대출판의 동향과 전망 / 편집자가 알아야 할 출판 마케팅 / 출판기획의 실제  
편집자가 알아야 할 출판 광고 홍보론 / 편집자가 알아야 할 출판미술평론 / 번역출판론 / 전자출판론 / 해외 저작권 관리 / 출판개방시대와 편집자의 비전

교육대상 : 출판편집 실무 경력 2년 ~ 5년의 편집자

장 소 : 한국기독교 백주년 기념관 회의실

주최 (문의) : 한국기독교출판협의회 (T. 3474-0820)

주관 (문의, 접수) : 예영커뮤니케이션 (T. 267-0161)

수강료 : 150,000원(한국기독교출판협의회 회원사)/200,000원(비회원사, 개인)

입급계좌 : 국민은행 068-21-0416-622 (김승태)

예영커뮤니케이션 출판부 T. 267-0161~4 출판유통사업부 T. 325-7971